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大王居陁知’ 조 설화의 검토

전 기 응*

1. 머리말
2. 王京과 왕거인 사건
 - 1) 왕거인 사건의 검토
 - 2) 왕경의 정치적 변동
3. 康州의 해상세력과 거타지 설화
 - 1) 거타지 설화의 검토
 - 2) 강주와 왕봉규의 해상활동
4.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가 몰락의 시기로 넘어가는 진성여왕대의 설화는 ‘진성여대왕거타지’조에 수록된 왕거인 사건과 거타지 설화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왕경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으로 당시 지배층의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방에서 흥기하는 해상세력의 모험과 성공을 희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왕경과 지방이라는 양자의 대비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왕거인 사건은 6두품 지식인과 왕경의 중심계층인 국인이 여왕과 왕실 측근의 세력집단에 대한 불만을 다라니의 은어를 통해 표출한 것이었다. 왕경의 분열은 이미 신라가 몰락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진성여왕대 왕경의 사회상과 분위기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거타지 설화는 강주의 거타지가 신라 사신을 수행하여 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용왕의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kwjeon2000@hanmail.net)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보호를 얻어 무사히 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의 테마는 송악의 작제건 설화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바다로 나가 모험을 겪고 보물을 얻어 귀환한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해상 상인들의 모험담이었다.

두 설화 속의 사건은 그 후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왕거인 사건 이후 왕경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두로 개혁과 정치적 변화를 시작하였다. 예겸과 효종, 효공왕 요와 신덕왕 경휘로 이어지는 신라말 정치사의 전개는 왕거인 사건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거타지 설화와 작제건 설화는 그 후 각기 강주의 왕봉규와 송악의 왕건이라는 강력한 해상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거타지의 활동을 이어간 왕봉규는 신라의 대당외교에 협조하며 활동하였으나, 신라를 벗어나 독립된 국가 조직을 갖춘 송악의 왕건에 의해 몰락하고 만다.

* 주요어: 삼국유사, ‘진성여대왕거타지’ 조, 왕거인, 거타지, 왕봉규

1. 머리말

『三國遺事』는 표로 만들어진 ‘王曆’을 제외하면 모두 8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 편이 ‘紀異’편이다. 기이편은 다른 7편이 불교와 관련된 것임 비하여 일반적인 역사서의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분량도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나머지 7편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기이편은 주로 국가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여기에는 왕실과 국왕에 관련된 신이한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있으며 특히 신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56명의 신라왕 중에서 36명의 왕이 언급되고 있다.¹⁾

기이편에 수록된 설화들은 그저 신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기의 사회상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이 많아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1) 이기백,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신라문화』 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있다. 특히 하대 경문왕가기의 진성여왕을 전후한 시기의 설화들은 신라가 몰락하는 시기의 정치와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景文王家期(861~911)는 경문왕과 그 자녀들인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과, 헌강왕의 아들인 효공왕까지 5대에 걸친 50년 간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에 신라는 하대의 왕위계승 혼란이 사라지고 헌강왕대 왕경의 번영을 이루었으나 그 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진성여왕 3년에 이르면 전국의 반란과 분열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일연의 시각에 의하여 해석된 신라 멸망의 원인과 의미는 이 시기에 수록된 설화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경문왕가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기사로는 第四十八 景文大王, 處容郎望海寺, 眞聖女大王居陁知, 孝恭王의 4개의 편이 있다.

‘第四十八 景文大王’ 조에서는 4개의 설화가 소개되어 있다. 첫 번째 설화는 화랑 응림이 헌안왕의 사위가 되어 국왕에 오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두 번째는 경문왕의 침소에 거대한 뱀이 들어와 수호하였다는 것, 세 번째는 갑자기 왕의 귀가 길어졌다는 사실과 이 비밀을 홀로 알고 있던 복두장의 발설에 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4명의 화랑이 금란에 회동하여 왕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고 3곡의 노래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處容郎望海寺’ 조에는 헌강왕에 관한 두 개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헌강왕이 개운포에 나가 동해용을 만나서 망해사를 짓게 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龍子인 처용이 역신을 퇴치하는 에피소드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헌강왕이 남산신 북악신 등 호국신들과 조우하였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설화의 말미에 『어법집』을 인용하여 신들의 경고를 알지 못하고 놀이에 빠진 탓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언급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다.²⁾

‘眞聖女大王居陁知’ 조에는 두 가지의 설화가 들어 있다. 하나는 왕거인

2) 전기웅, 『헌강왕대의 정치사회와 ‘처용랑망해사’ 조 설화』,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사건이다. 왕거인의 투옥과 방면에 관한 이야기로 국정을 비판하였던 다라니에 대한 해석이 첨부되어 있다. 다음은 거타지 설화로 당나라로 가던 거타지가 해상에서 용왕을 구원하고 용녀와 보화를 얻어 돌아왔다는 모험담이다.

‘孝恭王’ 조는 가장 간략하다. 다소 엉뚱하게 까치와 까마귀가 집을 지었다는 것과, 서리가 내리고, 민물과 바닷물이 싸웠다는 것을 별다른 설명 없이 짧게 기술하였다.

얼핏 보아도 이 설화들이 단순한 신기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이편은 설화로 엮어낸 역사이다. 설화들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일연은 설화를 통하여 그 시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상징과 은유로서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 설화들을 신중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신라의 분열이 시작된 진성여왕대의 설화인 ‘진성여대왕 거타지’ 조에 대해 분석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왕거인 사건은 왕경 내부의 분열과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는 왕경의 불안한 사회상을 보여주며, 위홍 사후의 정치적 변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거타지 설화는 강주 지역의 해상세력과 연관되고 있다. 바다에 나아가 모험을 겪고 보화를 얻어 귀환하는 상인의 성공담이라는 테마는 송악의 작제전 설화에서도 발견된다. 이 두 지방에서는 각기 왕봉규와 왕건이라는 대 해상세력의 활동이 나타난다. 일연은 추락하는 왕경의 분열하는 사회상과 활발하고 진취적인 지방 해상세력의 양상을 두개의 설화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2. 王京과 왕거인 사건

『삼국유사』 기이편의 ‘진성여대왕거타지’ 조는 왕거인의 투옥과 방면에 관한 사건의 경위와 신라의 대당사신을 수행하면서 거타지가 겪은 모험담의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³⁾ 왕거인 사건은 왕경의 정치적 상황

을, 거타지 설화는 지방 해상세력의 사회상을 각기 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얼핏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설화가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왕경과 지방의 분위기가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왕거인 사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⁴⁾

1) 왕거인 사건의 검토

‘진성여대왕거타지’ 조에 수록되어 있는 왕거인 사건은 설화적 성격보다는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왕거인 사건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A-1. 제51대 眞聖女王이 임금이 된지 몇 년 만에 乳母인 晁好夫人과 그녀의 남편 魏弘匠干 등 3, 4명의 寵臣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정사를 어지럽히니 도적들이 별떼처럼 일어났다.
- A-2. 國人들이 이를 근심하여 다라니의 隱語를 지어 길 위에 던졌다. 왕과 權臣들이 이것을 얻어 보고 “王居仁이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짓겠는가.”하고는 거인을 옥에 가두었다. 거인이 詩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니 하늘이 그 옥에 벼락을 쳐 그를 풀어주었다.
- A-3. 그 시는 이렇다. “燕丹의 피어린 눈물에 무지개가 해를 뚫었고, 鄒衍이 품은 슬픔에 여름에도 서리가 내렸네. 지금 나의 불우함은 그들과 같은데 皇天은 어찌 아무런 조짐도 없는가.” 또 다라니의 은어는 이러했다.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晁伊娑婆訶.” 해설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刹尼那帝란 여왕을 가리킨 것이요, 判尼判尼蘇判尼는 두 蘇判을 말한 것이다. 소판은 官爵의 이름이요, 于于三阿干은 3,

3) 편의상 전자를 왕거인 사건, 후자를 거타지 설화로 부르고자 한다. 전자는 설화적 요소보다 일반적인 역사의 기술에 가까우며,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해당하므로 왕거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때때로 사기와 유사로 약칭하기도 하였다.

4) 왕거인 사건과 관련 인물,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기웅, 『신라말기 정치사회의 동요와 육두품지식인』,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 변동』,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신서원, 1994, 78~105쪽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4명의 寵臣을 말한 것이요, 梟伊는 梟好를 말한 것이다.”⁵⁾

왕거인 사건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의 배경인 A-1과 사건의 전개인 A-2, 그리고 사건 속에 담긴 문헌들의 소개가 A-3이다. 이 중에서 “하늘이 옥에 벼락을 쳐 그를 풀어주었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가 일반적인 사실에 충실한 역사적 기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A-3는 옛 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어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왕거인 사건에 대해서는 설화적 해석보다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

A-1에는 진성여왕 3년의 전국적인 도적 봉기의 원인에 대한 기술과 당시의 왕경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있다. 진성여왕대의 정치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유모인 부호부인과 그녀의 남편인 위홍잡간, 그리고 3, 4명의 충신이라고 지목하였다. A-2에는 왕거인 사건의 전개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國人들은 이들의 실정과 그로 인한 전국의 소요를 미워하여 다라니의 은어를 지어 길에 던졌다고 한다. 여왕과 권신들은 왕거인을 지목하고 잡아 투옥하였으나 그는 하늘의 조짐으로 풀려난다. A-3에서는 왕거인이 지은 시의 전문과 다라니의 은어, 그리고 은어에 대한 해설이 옛 문헌의 모습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 왕거인 사건은 『三國史記』에도 소개가 되어 있다. 양 사서에 모두 비중있게 수록된 것은 이 사건의 의미와 파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삼국사기』 권11, 眞聖王 2년 2월조의 기사이다.

B-1. 위홍이 죽으므로 追諡하여 惠成大王이라고 하였다. 왕은 이후로 비밀히 2, 3인의 소년 美丈夫를 불러들여 음란하며 그들에게 요직을 주고 국정을 위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충애를 얻은 자들이 방자해지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며 상벌이 공평하지 못하여 기강이 문란하게 되었다.

B-2. 이때에 어떤 자가 익명으로 시정을 비방하는 글을 지어 대로상에 게시하였다. 왕은 사람을 시켜 수색케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

5) 『삼국유사』 권2, 진성여대왕거타지 조.

는데 어떤 자가 왕에게 고하기를 “이는 반드시 失志한 文人의 소행일 것이니 아마도 大耶州의 隱者 巨仁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명하여 거인을 왕경의 옥에 잡아 가두고 장차 형을 가하려 하니 거인은 분하고 원통하여 獄壁 위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于公이 통곡하니 3년 동안 날이 가물었고 鄒衍이 슬픔을 품으니 5월에도 서리가 내리었다. 지금 나의 근심도 예와 다름이 없는데 皇天은 말이 없이 그저 蒼蒼할 뿐이구나”라고 하였다. 그날 저녁에 홀연히 雲霧가 끼고 雷震이 일어나고 雨雹이 쏟아지니 왕은 두려워 거인을 풀어주고 돌려보냈다.⁶⁾

여기에서 B-1은 사건의 배경이 된 진성여왕 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B-2는 왕거인 사건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유사에 비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양 사서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줄거리는 같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없는 부분이 담겨 있어서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부분도 적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왕거인 사건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史記에는 위흥의 사후라고 하였으며 진성여왕 2년 2월조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遺事에서 언급한 도적 봉기의 사실은 진성여왕 3년의 일이며 위흥 사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으므로 2년 2월의 일이라기보다는 3년의 도적 봉기가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보는 것이 옳겠다.

여왕의 측근세력으로는 유사에서는 부호부인, 위흥, 3~4 총신이라고 하였으며, 사기에서는 2~3인의 少年美丈夫라고 하였다. 위흥 부부와 소수의 귀족들, 그리고 위흥 사후에는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장부들이⁷⁾ 여왕의 측근으로 등장한 것이다.⁸⁾ 이들은 모두 여왕과 밀접한 위흥세력에 해당되

6)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2년 2월조.

7) ‘少年美丈夫’라는 표현은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미소년이라고 번역되어 왔지만, 엄격히 말하면 ‘나이가 적고 용모가 아름다운 丈夫’이며, 장부는 이미 성년이 된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즉 미소년이 아니라 미장부인 것이다. 앞의 소년과 뒤의 장부가 모순되는 표현인데, 적어도 미성년자는 아니라고 하겠으며, 갓 성년을 넘긴 ‘젊고 아름다운’ 정도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8) 이 少年美丈夫들은 경문왕가기에 이르러 정치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였던 화랑세력과 관련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웅, 『신라하대의 화랑세력』, 『신라문화』 10·11합집, 동국대

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의 기록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유사에서는 “擅權撓政”이라고 하여 단지 정사를 어지럽혔다고만 하였는데, 사기에서는 “佞倖肆志，貨賂公行，賞罰不公，紀綱壞弛”라고 하여 위홍의 사후에 여왕의 총애를 얻어 요직을 차지하고 국정을 위임받은 자들은 소년미장부들이며, 이들이 권력을 얻자 방자해져서 뇌물과 상벌이 공평치 못하고 기강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정의 책임은 오직 소년미장부들에게 있으며 위홍의 사망 이전에는 적어도 극심한 비난은 없었던 것이 된다.

B-2에서 시정을 비방하는 글이 무엇인지는 유사에서 다라니의 은어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도 유사에서만 소개되고 있다. 그 작자에 대해서는 유사가 國人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기는 ‘無名子’ 즉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였다. 계시방법도 길에 던진 것과 방을 붙인 것으로 차이가 난다.

王居仁에 대해서는 유사가 설명 없이 이름만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 사기는 문인으로 그 뜻을 얻지 못한 자, 大耶州의 隱者라고 하여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 수 있다. 그가 지은 시의 내용이나 권신들이 의심 없이 왕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왕거인은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한 문인이며 당에 유학한 경력이 있는 6두품 출신으로 당시의 정치세력에 반감을 갖고 비판하다가 도피하여 대야주에 은둔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겠다.

그가 지은 시의 내용은 유사에서의 燕丹과 鄒衍의 댓귀가 사기에서는 于公과 추연으로 바뀌어 있는 등 의미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⁹⁾. 이는 이

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4, 129쪽.

9) 燕丹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태자인 단을 말한다. 연나라가 자객 형가를 보내어 진왕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자, 두려워 태자 단을 목 베어 사죄하였다. 于公은 한나라 東海 사람으로 옥사를 잘 처리함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한 孝婦를 위한 쟁송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鄒衍은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이다. 연나라의 소왕이 스승으로 섬겼으나, 아들인 혜왕이 신하의 참소를 믿고 추연을 옥에 가두었더니 여름에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 연단과 추연은 전국시대 사람으로 동시대인이나 우공은 漢나

사건과 시의 내용이 여러 갈래의 구전으로 조금씩 다르게 전하여져 오다가 어느 시기에 문자로 정착되면서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기와 유사는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쓰인 자료를 참고했을 것이다.

그밖에 유사에서는 거인이 하늘에 호소하니 하늘이 벼락을 쳐서 구원하였다고 하여 풀어준 주체가 하늘로 되어 있으나, 사기에서는 옥의 벽에 글을 썼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나므로 여왕이 그를 방면한 것으로 되어 있다던가 하는 차이들이 보인다. 이 두 기록의 상이점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왕거인 사건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기록의 비교

소재	『삼국유사』 권2, 진성여대왕거타지조	『삼국사기』 권11, 眞聖王 2년 2월조
발생시기	진성여왕이 즉위한지 몇 년이 지난 후 臨朝有年	위홍이 죽고 혜성대왕으로 추시한 이후 及魏弘卒, 追諡爲惠成大王. 此後
측근세력	유모인 부호부인, 위홍잡간 등 3, 4 총신 乳母覺好夫人, 與其夫魏弘巨干等三四寵臣	2, 3인의 소년 미장부 少年美丈夫兩三人
실정의 내용	그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정사를 어지럽힘 擅權撓政	그들에게 요직을 주고 국정을 위임하니 이로 말미암아 총애를 얻은 자들이 방자해지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며 상벌이 공평하지 못하여 기강이 문란하게 되었다. 仍授其人以要職, 委以國政. 由是, 佞倖肆志, 貨賂公行, 賞罰不公, 紀綱壞弛.
지방반란과의 관련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盜賊蜂起.	없음
다라니의 작자	국인 國人	이름 모르는 사람 無名子
글의 성격	다라니의 은어 陁羅尼 隱語	시정을 비방하는 글 欺謗時政

라 때의 사람이다. 아마도 옥사에 관련된 탓으로 우공의 고사가 삽입된 것이 아닐까 한다.

게시방법	길 위에 던졌다. 書投路上.	대로상에 게시하였다. 構辭榜於朝路.
왕거인의 투옥 이유	왕과 權臣들이 이것을 얻어 보고 "王居仁 이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짓겠는가"하고는 거인을 옥에 가두었다. 王與權臣等得之. 謂曰此非王居仁, 誰作此 文. 乃囚居仁於獄.	왕은 사람을 시켜 수색케 하였으나 잡 지 못하였는데 어떤 자가 왕에게 고하 기를 "이는 반드시 失志한 문인의 소 행일 것이니 아마도 대야주의 은자 거 인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명하 여 거인을 왕경의 옥에 잡아 가두고 장차 형을 가하러 하였다. 王命人搜索, 不能得. 或告王曰 此必文 人不得志者所爲, 殆是大耶州隱者巨仁 耶. 王命拘巨仁京獄, 將刑之.
거인의 호소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다. 居仁作詩訴于天.	분하고 원통하여 옥의 벽 위에 글을 쓰다. 巨仁憤怨, 書於獄壁.
방면의 방법	하늘이 옥에 벼락을 쳐 그를 풀어주었다. 天乃震其獄囚以免之.	그날 저녁에 홀연히 雲霧가 끼고 雷震 이 일어나고 雨雹이 쏟아지니 왕은 두 려워 거인을 풀어주고 돌려보냈다. 其夕, 忽雲霧震雷雨雹, 王懼, 出巨仁 放歸.
거인의 시	燕丹의 피 어린 눈물에 무지개가 해를 뚫 었고, 鄒衍이 품은 슬픔에 여름에도 서리 가 내렸네. 지금 나의 불우함은 그들과 같은데 皇天은 어찌 아무런 조짐도 없는 가. 燕丹泣血虹穿日, 鄒衍含悲夏落霜, 今我失 途還似舊, 皇天何事不垂祥.	于公이 통곡하니 3년 동안 날이 가물 었고 鄒衍이 슬픔을 품으니 5월에도 서리가 내리었다. 지금 나의 근심도 예와 다름이 없는데 皇天은 말이 없이 그저 蒼蒼할 뿐이구나. 于公慟哭三年旱, 鄒衍含悲五月霜, 今 我幽愁還似古, 皇天無語但蒼蒼
다라니 은어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 三阿干 覺伊娑婆訶.	없음
다라니의 해설	"찰니나제란 여왕을 가리킨 것이요, 판니 판니소판니는 두 소판을 말한 것이다. 소 판은 官爵의 이름이요, 우우삼아간은 3, 4명의 충신을 말한 것이요, 부이는 부호 를 말한 것이다." 刹尼那帝者, 言女主也. 判尼判尼蘇判尼者, 言二蘇判也. 蘇判爵名. 于于三阿干也. 覺 伊者, 言覺好也.	없음

전반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사기의 기록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다라니의 내용과 해석은 유사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라니의 은어는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覺伊娑婆訶”라

고 하였다. 說者의 해설에 의하면 찰니나제란 여왕이며, 판니판니소판니는 두 蘇判이며, 우우삼아간은 3, 4명의 寵臣이며, 부이는 梟好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여왕과 두 소판, 3~4 충신, 부호부인이라는 것이다. 이 해설이 당시의 것인지 후대에 부회하여 작성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왕거인 사건의 내용과 다라니 은어에 해설을 담은 설화집이 전해져 왔으며 일연은 이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⁰⁾ 이 다라니에서 언급된 2명의 소판의 이름이나 3~4명의 충신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진성여왕과 위홍, 부호부인은 명백하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眞聖女王은 경문왕의 딸이며 현강왕, 정강왕의 동생이다. 그가 여성으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문왕의 자손으로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여왕의 왕위계승은 경문왕가 왕실의 신성한 혈통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하였다. 정강왕은 유조에서 “누이 ㅼ은 天賚가 명민하고 骨法이 장부와 같으니 경들은 선덕 진덕의 고사에 따라 그를 세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¹⁾ 경문왕가의 혈통을 의미하는 ‘骨法’과 선덕, 진덕의 옛일을 들어 여왕을 즉위케 하였던 것이다. 그 배후에는 위홍세력의 지지와 후원이 있었다. 위홍¹²⁾은 경문왕의 친동생이며 현강왕과 정강왕 진성여왕의 숙부이다. 삼국유사의 왕력에는 진성여왕의 ㅼ을 위홍이라고 하였다.¹³⁾ 그러나 여왕과 위홍이 정식 부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10) 처용랑망해사조에 보이는 『語法集』에서는 ‘智理多都波都波’라는 은어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설화의 내용에 대한 소개와 은어의 해설을 담고 있는 『어법집』같은 문서가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라니의 은어도 또한 이와 같은 성격의 설화집에서 채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11) 『삼국사기』 권11, 정강왕 2년 5월조.

12) 위홍에 대해서는 전기웅, 『나말여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해안, 1996, 35~39쪽; 권영오,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대구사학』 76집, 대구사학회, 2004가 참고 된다.

13) 왕력편 ‘진성여왕’에는 “王之匹 大角干追封惠成大王”의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진성여왕의 남편이 위홍이라는 유일한 전거이다. 이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권영오, 앞의 논문, 2004. 해석의 여지가 많으므로 차후 더 깊은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많아 보인다. 공식적인 혼인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운데다¹⁴⁾ 부호부인의 남편이라는 위의 기록의 내용과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위홍은 여왕의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음은 틀림이 없겠다. 여왕은 20세 남짓에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한 다음 해 갑자기 위홍이 죽고 전국적인 도적의 창궐과 신라의 분열, 왕경내의 정치적 갈등, 잦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재위 10년 만에 효공왕에게 왕위를 선양하고 복궁으로 물러나 6개월 후에 죽었다.

魏弘은 경문왕대에서 시작하여 진성여왕의 즉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문왕가 왕실의 실질적인 주도자로서 정치의 핵심에 있었다. 경문왕 5년에는 太弟 相國으로 종묘에 제를 올리고, 왕을 대신하여 선왕릉에 배알하였다.¹⁵⁾ 이후 871년에는 경문왕의 초청으로 왕경을 찾은 無染을 맞이하였고,¹⁶⁾ 上宰相, 守兵部令平章事伊干으로 監脩成塔事가 되어 황룡사9층목탑을 중수하는 책임을 맡았다.¹⁷⁾ 그는 진성여왕의 즉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즉위 후에는 1년간의 조세면제로 지방세력을 회유하는 한편 『三代目』의 편찬을 통해 여왕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홍은 경문왕가의 上代復古的 정신기반과 관련되는 주요사건의 대부분을 주도하였으며, 고유신앙과 관련되는 왕실의 종교적 권위의 지향을 추구하였다.¹⁸⁾ 위홍은 여왕 즉위 후 1년 만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경문왕가 왕실을 지탱해온 위홍의 죽음으로 왕실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후에는 惠成大王으로 추시되었다.

甍好夫人은 다른 기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여기에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인물이다. 부호부인에 대해서 이 기록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夫人이라는 진골귀족 여인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14) 혼인이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관계를 의미한다. 여러 명의 부인이 있더라도 혼인의 순서보다 정식 혼인관계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중요하였다.

15) 『大崇福寺碑銘』.

16) 『聖住寺朗慧和尚塔碑』.

17)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紀』.

18) 특히 위홍이 황룡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은 경문왕가 왕실의 정신적 기반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룡사에서의 백좌강회와 간동, 9층탑의 중건, 친행 등의 잦은 행사는 국가의식을 고조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것이다. 경문왕가와 황룡사와의 긴밀한 관계는 위홍을 매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여왕의 유모였다는 것이며, 그녀의 남편이 위홍이라는 것이다.¹⁹⁾ 위홍의 부인은 ‘海印寺田券’에는 康和夫人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²⁰⁾ 부호부인이 곧 강화부인일 가능성이 크다.²¹⁾ 부호부인은 진성여왕의 숙모로서 여왕뻘이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양육을 해왔다. 여왕을 키워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위홍이 죽은 후에 여왕은 부호부인에게 의지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위홍과 함께 왕실의 어른으로서 여왕대의 정치에 간여하였던 것이다. 진성여왕과 위홍, 부호부인은 바로 경문왕가 왕실 가족이다. 당시 왕경에 살고 있던 국민들의 원망과 비난이 여왕과 경문왕가 그 자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權臣으로 나오고 있는 당시의 권력자는 두 소판, 2~3의 소년미장부, 3~4 총신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여기서 각기 2명, 2~3명, 3~4명과 같이 숫자로 명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비록 인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각기 지명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소판은 진골 귀족의 관직이며 총신은 총애하는 신하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성격을 알기 어렵지만, ‘소년미장부’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경문왕 이후 정치적 활동이 활발하였던 화랑세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문왕 자신이 화랑이었으며 현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은 화랑의 자녀이며, 여왕은 현강왕의 딸을 화랑 효종과 혼인케 하였다. 경문왕가는 바로 花郎家이기도 하였다. 경문왕가를 뒷받침해준 정신적 기반과 세력이 모두 화랑과 관련된다.²²⁾ 이 2~3의 미장부도 화랑과 관련되어 해석할 수 있을 것

19) 이 부분의 원문은 “第五十一眞聖女王. 臨朝有年. 乳母鼻好夫人. 與其夫魏弘匠干等三四寵臣. 擅權擄政. 盜賊蜂起.”이다. 위홍은 진성여왕의 匹로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其夫를 진성여왕의 남편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문맥이나 기술의 내용으로나 부호부인의 남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20) 曹偉, 『梅溪集』 권4, 「書海印寺田券後」.

21) 권영오, 앞의 논문, 42~45쪽. 한편 당시 부인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현강왕녀이며 신덕왕비인 義成王后는 資成, 懿成, 孝資의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웠다.

22) 신라 하대 이후의 화랑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 된다. 전기웅, 「신라 하대의 화랑세력」, 『신라문화』 10·11합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4; 조범환, 「신라말 화랑세력과 왕위계승」, 『사학연구』 57집, 한국사학회, 1999.

이다. 이들은 경문왕가 왕실과 위흥에 관련되어 있었던 정치세력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한편 이들을 비방하는 다라니를 거리에 던진 사람이 ‘國人’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국인들은 왕위의 결정이나 국가의 중대사에 여론과 중의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이며, 왕경의 중심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원이었다.²³⁾ 이러한 국인들이 진성여왕기의 실정에 반발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제 왕실은 왕경인들의 비난과 저항에 부딪치기에 이르렀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왕경인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까닭일 것이다.

진성여왕대에 이르면 지방에서는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지방세력가들은 자립하여 왕실을 외면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세 수입은 감소되어 國用은 결핍하였다. 진성여왕이 즉위한 해(887) 왕실은 대사면령을 내리고 전국 諸州郡의 1년간 조세를 면제해주었는데,²⁴⁾ 이 조세 감면의 조치는 신라 정부와 왕경 귀족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하여 불만과 고통이 누적되어 있었던 지방민의 민심을 회유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한번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민들은 연이은 홍작으로 말미암아 다음 해에도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²⁵⁾ 이에 정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각지에 사신을 파견하여 독촉을 하였다.²⁶⁾ 이때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려는 관원들과 저항하는 지방민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을 비롯하여 지방민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각지에 도적들이 봉기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현강왕대의 왕경은 178,936戶에 1,360坊 55里的의 거대한 규모의 대도시이다.²⁷⁾ 호당 4인 구성으로 보아도 70만 명이 넘는다. 왕경의 변화와 사치는 현강왕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경문왕 이후 많은 佛事와 塔 寺院 碑

23) 전기웅, 『나말여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해안, 1996, 42~46쪽.

24)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즉위 조.

25) 진성여왕의 면세조치가 있었던 그 해인 즉위년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았으며, 다음 해인 2년 5월에는 가뭄이 있었다. 농민들은 거둬진 천재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렸던 것이다.

26)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3년 조.

27) 『삼국유사』 권1, 진한 조.

浮屠 등의 건축과 보수, 현강왕대의 가무를 수반한 각종 연회, 그리고 지방마다 기와를 엮고 솥으로 밥을 짓는 왕경인의 사치는 대부분 지방에서 수탈해온 물자들로 인한 것이었다. 지방민들이 조세를 거부하면서 왕경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하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왕경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효녀지은조에서 보이듯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노비로 몰락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지은과 같은 하층민은 결식마저 어려워질 정도로 왕경의 경제적 상황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

현강왕대의 번영을 맛보았던 왕경의 국민들은 진성여왕의 즉위를 전후하여 취약해진 왕실이 실정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지방의 조세저항으로 국용과 재정의 압박으로 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니 마침내 왕실과 측근세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왕거인 사건은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왕거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신라 왕경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2) 왕경의 정치적 변동

국민들이 진성여왕을 직접 겨냥하여 던진 다라니는 곧呪文을 말한다.²⁸⁾ 단순한 문장과는 달리 주문은 神的인 주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주문을 외칠 때는 수로부인의 설화에서와 같이 용을 굴복시킬 수도 있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진성여왕대와 같이 경문왕가 왕실의 종교적 권위를 강조하던 시기에 왕실과 정치사회에 미친 다라니의 파장과 충격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왕거인 사건 이후 왕경의 지배층과 정치사회에서는 다양한 변화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여왕 측근의 화랑세력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던 하층 왕경민에 대한 구휼과 관심의 형태로 나타났다. 화랑 효종이 빈민인 지은을 속량하고 그의

28) 본래 다라니는 긴 경전에 실려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짧게 요약한 것을 말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형식상의 유사함 때문에 주문까지도 다라니로 통칭되었으며, 길이에 따라 짧은 것은 眞言 또는呪라 하고, 긴 것을 다라니 또는 大呪라 하였다.

수천 냥도들이 1석씩 내어 도와준 것은²⁹⁾ 아름다운 미담으로 여겨져 칭송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여왕은 또한 벼 5백 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여 주었다.³⁰⁾ 이 일로 인하여 화랑 효종은 정치적으로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³¹⁾ 여왕은 화랑 효종을 현강왕녀와 혼인케 하여 다음 왕위계승자의 지위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여왕의 실정을 비난하였던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부상한 정치세력은 父謙이었다. 위홍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 비하여 예겸은 비교적 생소하지만, 그는 위홍과 함께 신라 말의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현강왕대의 시중을 거친 인물로 효공왕의 妃父이며 신덕왕의 義父이다. 예겸 세력은 진성여왕 후반에 이르면 정치를 장악하고 정국을 이끌어가기에 이른다. 이 무렵부터 6두품의 진출과 함께 최치원의 시무 10조가 제시되고 중국식 관호와 관직명, 문산계가 채용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도독제를 대신하여 군사적 대응체제인 성주 장군과 知州諸軍事 제도가 성립되었고, 5소경과 군현의 주, 부로의 전환과 골품제의 변화, 위계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간 정치사회의 배후에는 예겸이 있었던 것이다.³²⁾

두 세력은 진성여왕 이후의 왕위를 어느 쪽에서 차지하느냐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는데, 화랑출신으로서 현강왕의 장녀와 혼인하였던 효종과 예겸의 義子로서 현강왕의 차녀와 혼인하였던 경휘의 두 사람이 여왕 이후의 왕위 계승을 노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왕위계승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쪽은 효종이었다.³³⁾ 별다른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경휘에³⁴⁾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

29) 『삼국유사』 권5, 효선9, 빈녀양모 조; 『삼국사기』 권48, 열전, 효녀지은 조.

30) 여왕은 이에 더하여 군사를 보내 지켜주게 하고 그 마을을 孝養坊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表文을 올려 당나라 왕실에게까지 그녀의 아름다운 행실을 알렸다고 한다. 여왕이 베푼 조치는 지나칠 정도로 풍성하다.

31) 효녀지은 설화에 대해서는 이종욱, 「신라하대의 골품제와 왕경인의 주거」, 『신라문화』 제7집, 1990; 전기웅, 「진성여왕대의 화랑 효종과 효녀지은 설화」, 『한국민족문화』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참조.

32) 이 시기 왕거인 사건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전기웅, 앞의 논문, 1994 참조.

33) 효종은 문성왕의 후손으로 아버지인 삼재상 서발한 인경은 당시의 실력자이며 조부인 민공은 현강왕대의 시중이었다. 그는 효녀 지은을 구휼한 일로 사람들의 칭송을 얻었고 여

었지만, 효종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현강왕의 아들인 요가 나타남에 따라 경문왕가의 직접 혈통이 아닌 효종은 왕위계승에서 밀려났던 것이다. 요의 등장과 왕위계승에는 예겸 세력의 작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위는 효공왕 요의 뒤를 이어 신덕왕이 된다.

경문왕가의 종교적 권위와 상대복고적인 경향은 예겸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고 신라정부는 개혁을 통하여 왕경 내외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진성여왕대 후반에는 당에 대한 외교적 교섭이 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의 사정에 밝은 도당유학생 출신의 6두품 문인들이 사신으로 파견되거나 공헌을 하였다. 최치원은 당에 사행하고 돌아온 즉시 시무10조를 제출하여 가납되었으며, 당의 사정과 제도 문물에 밝았던 도당유학생들의 지식은 신라가 후삼국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 유용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무너져가는 신라의 운명을 수십 년 동안 더 연장시킬 수 있었다. 국민이 진성여왕대의 실정을 비판하며 일어났던 왕거인 사건은 왕경에서 정치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이 실정을 회복하여 개혁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3. 康州의 해상세력과 거타지 설화

1) 거타지 설화의 검토

다음으로 ‘진성여대왕거타지’ 조의 두 번째 이야기인 거타지 설화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³⁵⁾ 居陁知라는 이름에서 居陁는 康州(진주)의 옛 명칭이

왕은 그를 ‘나이는 어리나 老成한 덕이 있다’고 하며 현강왕녀와 혼인케 하였는데, 이는 다음 왕위계승자로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경문왕가의 왕실의 지지를 얻고 수천 명에 이르는 낭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34) 경위는 박씨로서 아달라왕의 원손이며 예겸의 義子가 되었다. 그 밖의 중요한 업적이나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35) 이 설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서해의 용이다. 거타지설화를 용과 관련하여 주목해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신동익, 『거타지설화 소고-용구출담의 비교를 중심으로-』, 『육사논문집』 26집, 육군사관학교, 1984. 하대에 이르면 용은 중앙의 왕권이나 정부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하대 용의 실체를 지방호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우성,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문석』,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을유

며,³⁶⁾ 知는 신라에서 이름 뒤에 붙여 우두머리의 존칭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거타지는 거타주, 즉 강주지역의 유력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신지역의 명칭을 이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보이는데, 거타지는 거타사람, ‘康州人’이라는 이름인 셈이다.³⁷⁾ 왕거인 사건이 왕경의 사회상을 전하는 상징적인 설화라면 거타지 설화는 지방사회, 특히 강주지방 해상세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거타지 설화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C-1. 이 왕 때에 阿飡 良貝는 왕의 막내아들로서 사신이 되어 唐에 가는데 백제의 해적들이 津島에서 길을 막는다는 말을 듣고 弓士 50명을 뽑아 따르게 했다.

C-2. 배가 鵠島(鄉言으로는 골대도라 한다)에 이르자 풍량이 크게 일어 열흘을 묵게 되었다. 良貝公은 이를 근심하여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였더니, “이 섬에 神池가 있으니 제사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못 위에 제물을 차려 놓았더니 못물이 한 길도 넘게 치솟았다. 그날 밤 꿈에 노인이 나타나 공에게 말하기를 “활 잘 쏘는 한 사람을 이 섬에 남겨 두면 순풍을 얻을 것이다” 하였다. 공이 깨어나 그 일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었다. “누구를 남겨 두는 것이 좋겠는가.” 이에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나무 조각 50개에 우리의 이름을 써서 물에 담가 가라앉는 것으로 제비를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공이 그 말대로 하였다.

문화사, 1969.3. 용왕은 바다를 다스리며 인간에게 보물을 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문에 약하고 승려를 가장한 여우에게 침탈당하고 사람의 도움을 얻어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6) 『삼국사기』 권34, 지리지 康州 조. 강주는 지금의 쑤주인데, 신문왕 5년에 居陞州를 나누어 菁州를 설치하였으며 경덕왕대에 이르러 康州로 고쳤다고 하였다. 즉 거타는 신문왕 이전까지 강주의 고유한 이름이었다. 개명된 이후에도 거타라는 이름은 민간에서 잊혀지지 않고 이어진 것이라 하겠다.

37) 신라말 고려초부터 본관과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김수태, 『고려 본관제도의 성립』, 『진단학보』 52집, 진단학회, 1981, 56~58쪽 참고, 본관으로 자신의 출신지를 밝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구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역의 명칭이 사람을 부르는데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볼 수 있다.

C-3. 이때 군사 중에 居陁知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물에 가라앉았으므로 그를 머무르게 하였더니 문득 순풍이 일어나고 배는 거침없이 나아갔다. 거타지는 수심에 잠겨 섬 위에 서 있는데 문득 한 노인이 못에서 나오더니 말하기를 “나는 西海若이다. 매번 해가 뜰 무렵이면 하늘로부터 사미 하나가 내려와 陀羅尼를 외우면서 이 못을 세 번 돈다.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식 손자들이 모두 물 위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 사미는 내 자손들의 간과 창자를 뽑아 먹는다. 이제는 딸 하나와 우리 부부만이 남게 되었다. 내일 아침에도 반드시 올 것이니 그대는 활로 그를 쏘아 달라”라고 하였다. 거타가 “활 쏘는 일이라면 나의 長技이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노인은 고맙다 하고 사라지고 거타는 숨어서 기다렸다. 이튿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자 과연 사미가 와서 전과 같이 주문을 외우고 늙은 용의 간을 앗으려 하였다. 이때 거타가 활을 쏘아 맞히니 사미는 곧 늙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떨어져 죽었다.

C-4. 이에 노인이 나와 치사하기를 “공의 은덕으로 내 性命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내 딸을 아내로 맞아주기 바란다” 하니, 거타는 “주는 것을 저버리지 않으리니 참으로 원하던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노인은 그 딸을 한 가지 꽃으로 변하게 하여 품속에 넣어주고, 두 용에게 명하여 거타를 받들고 使臣의 배를 쫓아가 그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당나라 사람은 신라의 배를 두 마리의 용이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아뢰니 황제는 “신라의 사신은 반드시 비상한 사람일 것이다.”하고 잔치를 베풀어 여러 신하들의 위자리에 앉히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었다. 본국으로 돌아온 거타는 꽃가지를 꺼내 여자로 변하게 하여 함께 살았다.

C-1에서는 거타지가 사신을 수행하며 당으로 가게 된 경위를 알려준다. 이 설화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신라 사신 아찬 양패는³⁸⁾ 왕의 季子라고 하였지만, 진성여왕에게는 아들이 없다.

38) 『고려사』 고려세계에 소개된 민지의 편년강목에서는 신라 사신의 이름을 金良貞이라고 하였다. 신라 귀족들의 일반적인 이름 형태를 감안하면 良貞보다는 良眞이 더 그럴 듯하다. 그러나 두 설화가 동일한 것이라는 확증은 없다.

당에 보내는 사신들은 자주 왕자를 칭하였는데, 이 또한 외교적 목적을 위한 칭호였다고 생각된다. 이미 백제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해상교통에 후백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후백제가 건국한 여왕 6년(892) 이후 얼마쯤 지난 뒤의 일이다. 진성여왕 7년에는 병부시랑 金處誨가 당에 사행하다가 익사하였으며³⁹⁾ 같은 해에 이번에는 최치원과 김준이 하정사로 다시 파견되는 등 이 무렵 신라의 대당외교는 매우 활발하였다. 최치원은 견훤의 세력에 의해 남쪽 길이 막히자 북쪽으로 올라가 서해안 중부지역에서 산동반도로 가는 항로를 이용하였다.⁴⁰⁾ 후백제가 진도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으므로 거타지의 일행은 서해안 중부지역을 거쳐 당으로 갔을 것이다. 배가 鵠島, 즉 백령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를 확인케 한다.

C-2에서, 배가 곡도에서 풍랑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섬의 神池에 제사를 지냈다. 신지는 수신신앙의 연못이니 水神에게 제례를 지낸 것이다. 여기에 응하여 노인이 꿈에 나타나 해결방법을 제시해 준다. 군사 1명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희생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군사들은 제비를 뽑고 거타지가 남게 되었다. 위기와 갈등의 발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C-3에서는 홀로 남겨진 거타지에게 西海若, 즉 서해용왕이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고 거타지는 사미로 화한 늙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임으로서 용왕을 구출한다. 여기에서 용과 대립관계에 있는 자는 沙彌, 즉 불교의 승려이다.⁴¹⁾ 사미는 불경의 주문인 다라니를 외워 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용의 간장을 앗아 먹는데, 용들은 도리가 없이 당하기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신이 만난 풍랑은 도움을 줄 사람을 얻기 위한 용의 수단이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水神인 용과 불교의 승려와의 대결이다.

39)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7년 조.

40) 전기웅, 『신라말의 개혁과 최치원』, 『신라사학보』 5집, 신라사학회, 2005, 130쪽.

41) 이 사미는 늙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다. 승려를 가장한 여우라는 설정이지만, 이 대립구조는 전통신앙인 용신신앙과 외래의 불교신앙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보는 편이 좋겠다. 이 시기에 이르면 지방사회에서 불교의 위력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가 점차 전래 민간의 수신, 용신신앙을 흡수해 가면서 전통적인 토착의 용들은 불교의 일부로 수용되거나 종속되었다. 불교에 귀의한 용은 善龍・法行龍・報德龍 등으로 인간 세상에 이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남고, 외래신앙인 불교에 저항하거나 귀의하지 않는 용들은 불교적 입장의 선악 개념에 의하여 惡龍이나 毒龍으로 분류되었다. 전통적인 용들은 교화되거나 퇴치됨으로서 불교신앙에 매몰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로왕이 주문으로 퇴치하지 못한 독룡과 나찰녀를 부처의 설법으로 교화시키거나⁴²⁾ 혜통에 의해 쫓겨나 사람들을 해치다가 기장산 웅신이 된 독룡⁴³⁾을 비롯하여 여러 설화 속에서 다양하게 찾아진다.⁴⁴⁾ 일반적으로 승려에 의해 용이 퇴치당하는 대개의 설화들에 비하여 거타지 설화에서는 오히려 사미가 늙은 여우로 변하여 죽고 용은 승리한다. 신라말에 이르면 지방사회에서 살아가던 전통적 토착의 용신은 더 이상 신라 왕실의 이데올로기이며 귀족의 신앙이었던 불교의 권위에 의해 굴복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사람의 도움이 있다. 거타지와 같은 지방 출신의 인물이 토착의 용신을 도와 사미를 물리치는 것이다.

불교의 승려에 대한 불신과 조롱을 담은 이러한 형태의 설화가 널리 유행하는 것은 지방민들을 수탈하고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왕경의 번영과 화려한 사치의 생활을 영위하던 왕실과 지배층에 대한 저항과, 자신의 힘을 자각한 지방민들이 중앙권력에 대항하려는 의식이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C-4에서 결과는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처리되고 있다. 서해용왕은 생명을 건지고 위엄을 되찾았으며, 사신 일행은 용들의 호위를 받으며 당에 도착하여 황제의 환대를 받았고, 주인공인 거타지는 龍女를 얻었다.

한편 『高麗史』 高麗世系에 수록되어 있는 태조 왕건의 선대설화 가운데 작제건 설화는 거타지 설화와 동일한 모티브와 유사한 내용을 보여준다.⁴⁵⁾

42) 『삼국유사』 권3, 탑상4, 어산불영 조.

43) 『삼국유사』 권5, 신주6, 혜통강룡 조.

44) 송봉호, 『전통신앙과 불교의 대립에 관한 연구-구룡사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7집, 한국무속학회, 2003.

작제건은 왕건이 조부이며 송악지역의 해상세력으로 여겨진다. 두 설화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와 같다.

〈표 2〉 거타지 설화와 작제건 설화의 비교

	거타지 설화	작제건 설화
소재	『삼국유사』 진성여대왕거타지조	『고려사』 高麗世系, 金寬毅의 編年通錄
시기	진성여왕 7년 무렵(893)	8세기 후반, 당 숙종 연간(756~761) 무렵
지역	남해 강주	서해 송악
가계	없음	부-唐 肅宗, 모-貞和王后, 자-용건, 손-왕건
도당사유	사신 良貝의 사행에 호위공사로 수행	당의 아버지를 찾아 商賈(편년강목-金良貞의 使行船을 탐)을 타고 떠남
위치	서해 鵠島(백령도)	서해 바다 북판쯤의 암초
구출	여우를 활로 쏘아 西海若을 구함	여우를 활로 쏘아 서해용왕을 구함
보답	용왕은 거타지와 용녀를 혼인케 하고 두 용으로 사신일행을 호위하여 줌	작제건은 용녀 虯鬚義와 혼인하고 칠보, 버드나무 지팡이, 돼지를 얻음
목적	사신일행은 당 황제의 환대를 받고 金帛을 얻어 사행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 옴	아버지 찾는 일을 그만두고 왕이 되기 위해 돌아 옴
지역세력	신라 知康州事 王逢規	고려 太祖 王建

작제건 설화는 金寬毅의 『編年通錄』을 인용하여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閔漬의 『編年綱目』 기사도 삽입되어 있어서 태조 선대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타지 설화가 강주지역을 중심으로 성립된 설화라면 작제건 설화는 송악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즉 남해 해상세력의 거타지 설화에 비해 작제건 설화는 서해 해상세력의 존재와 활동을 담고 있다. 남해지역은, 나주 영암지역을 통한 사행길이 막힌 이후 신라는 강주와 김해를 통한 남해 상통로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에 강주세력의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서해의 송악지역은 당의 등주로 향하는 길목으로 직접 당과의 연결이 가능하여 신라의 사행도 이 지역을 경유하게 되었다. 최치원도 이 지역을

45) 박한설, 『고려 왕실의 기원-고려의 고구려 계승이념과 관련하여-』, 『사충·강진철교수 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21·22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7, 105~106쪽. 태조의 선대 설화 가운데 작제건 설화는 왕건가의 무역과 해상활동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자료이다.

통하여 당에 사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지역에서는 각기 강력한 해상세력이 성장하였다. 강주에는 왕봉규, 송악에서는 왕건 일가가 그들이다.

두 설화는 용왕을 도와 불교의 승려를 가장한 여우를 퇴치하고 보답으로 龍女와 혼인하고 보화를 획득하여 돌아온다는 기본 내용이 일치한다. 이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성립된 것인지는 가리기가 쉽지 않다. 설화의 시간적인 배경은 작제건 설화가 잠저시의 당 肅宗의 아들인 작제건이 자라서 아버지를 찾아 간다는 설정이므로 대강 당 숙종의 재위기(756~761)인 8세기 후반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거타지 설화는 후백제가 건국한 이후의 진성여왕 재위기이므로 진성여왕 6년(892)에서 10년까지 기간의 일이 된다. 백제에 의해 길이 막혀 가기 어렵다는 상황은 최치원이 賀正使가 되어 사행하였던 여왕 7년(893)의 형세와 일치하므로 이 무렵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설화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작제건 설화가 100여 년을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타지 설화가 자연스럽고 원형에 가까운데 비하여 작제건 설화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첨가되어 복잡하게 변형되었으며 고려 태조의 선대를 꾸미는데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신라말에는 작제건이나 거타지와 같이 바다로 나가 모험을 겪고 금은보화와 여인을 얻어 돌아온다는, 마치 신밧드의 모험 같은 상인들의 성공담이 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배경이 강주나 송악이 된 것은 이 두 곳에서의 상인들의 활동과 진출이 다른 곳보다도 더 활발하였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의 기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타지는 용왕으로부터 금은보화 같은 보물을 받지 않았으며 탐내지도 않는다. 용왕의 보답은 거타지와 용녀를 혼인하게 하고 두 마리 용으로 사신 일행의 배를 호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인이라기보다는 소박하고 우직한 武人의 기질에 가깝다. 한편 작제건은 요구하는 것이 많다. 동방의 왕이 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할미의 조언으로 용녀와의 혼인을, 용녀의 조언으로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 등 여러 가지 보물을 용왕에게 요구

해서 마침내 받아낸다. 그래서 작제건은 용녀와 칠보와 지팡이와 돼지를 가지고 옷칠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다.⁴⁶⁾ 영악하고 이익에 밝은 상인의 기질을 보여준다. 이는 강주와 송악이라는 두 지역 간 성격의 차이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거타지 설화와 작제건 설화의 마무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거타지 설화에서는 용왕을 구출한 후 사신 일행은 용의 호위를 받으며 당에 도착하여 이를 기이하게 여긴 황제로부터 극진한 대우와 보화를 얻고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있다. 거타지는 처음부터 양패의 호위궁사로 使行에 참여하였으며 끝까지 사신 일행의 일원으로 신라의 사행 임무를 완수하였던 것이다. 즉 거타지의 求龍說話는 신라 사신의 임무 수행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제건 설화는 신라 정부의 공적인 임무인 사행의 성공여부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작제건은 상인의 배에 탔다고 하였으며, 혹 민지의 『편년강목』에서처럼 김양정의 사행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배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관계는 없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도당하려다가 동방의 왕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신라인의 상선에서 작제건을 고려인이라고 하였던 것도 이질적이다. 즉 강주의 거타지는 신라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에 비하여 송악의 작제건은 신라 정부와는 무관하다. 설화에서 드러나는 두 지역의 이러한 차이점은 그 후에 강주의 왕봉규가 신라를 도와 당과의 사행에 적극 협조한 것과 이와 대조적으로 송악의 왕건이 신라를 이탈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하였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2) 강주와 왕봉규의 해상활동

거타지와 작제건의 모험과 성공은 그 뒤를 이은 거대한 해상세력의 출현

46) 작제건이 용왕에게 보물을 요구하는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吾所欲者 王東土也 翁曰 王東土 待君之子孫三建必矣 其他惟命 作帝建 聞其言 知時命未至 猶豫未及答 坐後有一老嫗 戲曰 何不嫗其女而去 作帝建 乃悟 請之 翁以長女姁旻義 妻之 作帝建 齎七寶將還 龍女曰 父有楊杖與豚 勝七寶 盍請之 作帝建 請還七寶 願得楊杖與豚 翁曰 此二物 吾之神通 然君有請 敢不從 乃加與豚 於是 乘漆船 載七寶與豚 泛海 倏到岸”

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거타지의 뒤를 이어 강주에서는 왕봉규가, 송악에서는 작제건의 후손인 왕건의 대세력이 해상활동을 통해 성장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거타지의 강주지역은 신라말의 격동기에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일찍이 9세기부터 康州는 일본과의 교섭에서 신라의 대외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836년 일본에서 파견한 사신인 紀三津은 일본 태정관이 신라 집사성에 보내는 첩문을 가지고 왔는데 신라는 일본의 사신을 거절하고 菁州, 즉 강주에서 바로 돌려보냈다.⁴⁷⁾ 일본 사신의 거처와 통로가 강주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45년에는 신라의 강주에서 첩문 2통과 일본인 표류자 50인을 압송하여 太宰府로 보냈는데 대재부에 첩문을 보낸 주체가 바로 강주였음이 주목된다.⁴⁸⁾ 이 시기 신라는 주로 강주가, 일본은 대재부가 양국가의 창구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⁹⁾ 신라말 일본과의 교류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강주는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해상무역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강주지역의 해상활동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점차 중국과의 교역으로 확산되었다. 거타지가 당나라로 향하는 신라 사신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강주가 중국과의 교역활동에 나서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비록 설화이지만, 거타지의 활약은 강주와 중국과의 교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거타지의 뒤를 이어 강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가로 등장하는 인물은 王逢規이다. 거타지 설화의 배경이 된 시기는 진성여왕 7년(893) 무렵이며 왕봉규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경명왕 8년(924)년이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⁵⁰⁾ 거타지와 왕봉규가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거타지의 활동은 왕봉규와 같은

47) 『續日本後紀』 권5, 仁明天皇 承和 3년 12월 3일조.

48) 『續日本後紀』 권15, 仁明天皇 承和 12년 12월 5일조.

49) 전기웅, 「나말여초의 대일관계사 연구」, 『한국민족문화연구』 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9~10쪽.

50) 30년이란 짧은 거타지가 성숙한 중년이 되었을 세월이다. 거타지와 왕봉규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도 없지 않겠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다. 상상의 영역에 맡겨둘 일이다.

해상세력의 대두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 D-1. 遣使入後唐朝貢 泉州節度使王逢規 亦遣使方物⁵¹⁾
 2. 唐明宗 以權知康州使王逢規爲懷化大將軍⁵²⁾
 3. 知康州使王逢規遣使林彥 入後唐朝貢 明宗召對中興殿賜物⁵³⁾
 4. 康州所管突山等四鄉 歸於太祖⁵⁴⁾

D-1에서 왕봉규는 경명왕 8년(924) 정월에 천주절도사를 칭하면서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쳤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사는 신라가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신라정부와 왕봉규의 사신이 동시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신라정부의 사신과 왕봉규의 사신이 동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의 대당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던 왕봉규가 신라의 사신을 후당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천주절도사를 칭하며 독자적인 사신을 동행하여 보냈던 것이 아닐까 한다.⁵⁵⁾

장보고 사후 신라의 대외교역 창구는 강주와 김해를 비롯한 남부 해안지역이 중요시 되었다. 일본과의 교역창구가 강주였다든가 당 등주의 登州知後官 李彥謨가 신라 김해의 金州司馬이었음은⁵⁶⁾ 이런 사정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⁵⁷⁾ 그후 후백제가 서남해로 진출하면서 김해지역과 부산의 절영도까지 남해상을 위협하였고 이미 서해를 장악한 고려는 서남해의 해상권을 둘러싸고 후백제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신라는 경명왕 이

51) 『삼국사기』 권12, 경명왕 8년 정월조.

52) 『삼국사기』 권12, 경애왕 4년 3월조.

53) 『삼국사기』 권12, 경애왕 4년 4월조.

54) 『삼국사기』 권12, 경애왕 4년 4월조.

55) 사신 파견과 조공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조공무역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왕봉규가 스스로 사신 파견의 주체가 되려 한 것에는 이와 같은 무역의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6) 『冊府元龜』 권976, 外臣部 20, 蒙異3, 後唐 明宗 天成 2년 3월 을묘조.

57) 박승범, 『9~10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신라말 고려초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9집, 중국사학회, 2004, 119~120쪽.

후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어서 대중국외교를 통하여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후백제와 고려에 의해 해상을 봉쇄당한 경명왕대의 신라 왕경은 독자적으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지방세력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신라의 대외교역에 기여하였던 강주지역에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왕봉규와 같은 유력한 해상세력가가 등장하게 되었다⁵⁸⁾ 신라정부는 그와 협력하여 당과의 통교를 지속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당나라와의 교역에 신라의 후광이 필요하였던 왕봉규와 신라정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 일개 지방세력가에 지나지 않았던 왕봉규가 절도사를 칭하며 독자적으로 당에 사신을 보낼 수 있었던 배후에는 신라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계는 경명왕이 죽고 경애왕이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왕봉규가 사신을 파견하고 방물을 바친 것은 당과 신라와의 해상활동과 조공무역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3년 후인 경애왕 4년 3월에는 후당의 明宗이 權知康州使 王逢規를 懷人大將軍으로 삼았는데(D-2), 이는 바로 그 전달인 경애왕 4년 2월에 신라가 병부시랑 張芬 등을 후당에 보내어 조공하니 당에서는 장분에게 檢校工部尙書의 직함을 주고 副使 병부낭중 박술홍에게 兼御史中丞을 제수하는 등⁵⁹⁾ 사신들에게 관직을 수여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라의 사신 파견과 왕봉규의 대당 활동은 긴밀히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달인 4월에는 왕봉규가 후당으로 林彦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는 임시직을 뜻하는 ‘權’이 없어지고 정식으로 知康州使를 칭하고 있다. 왕봉규의 신라 직함인 知州諸軍事는 신라정부가 유력한 지방세력가를 회유하고 협조와 충성을 얻기 위하여 진골에 해당하는 지위와 신분을 부여하고

58) 왕봉규는 절도사, 대장군, 지주제군사의 직책을 얻었다. 이는 모두 군사적인 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다. 그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강주지역의 대호족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군사력은 해상활동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59) 『삼국사기』 권12, 경애왕 4년 2월 조.

그 지방의 지배권을 인정하였던 제도였다.⁶⁰⁾ 왕봉규는 대당외교에서의 공로와 역할로 지주제군사의 직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 명종은 중흥전에서 임언을 불러보고 물품을 내려주었다(D-3). 그는 후당의 명종으로부터 인정을 얻고 후대를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왕봉규가 임언을 후당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던 바로 그 해인 927년 고려는 강주지역에 진출하여 海軍將軍 英昌과 能式이 전이산 노포 평산 돌산 등 4개 지역을 항복시켰다.⁶¹⁾ 8월에는 태조가 강주를 순행하였으며 이에 고사갈이성 성주 홍달이 귀부하였다.⁶²⁾ 고려의 강주 공략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영창과 능식은 海軍의 장군이였다. 이로써 고려의 해군이 강주의 해상세력을 무찌르고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로서는 신라와 후당을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아울러 당과의 외교적 우위와 서남해의 해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강주의 왕봉규 세력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서해와 남해의 해상권이 모두 고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서 왕봉규의 활동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신라 또한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를 기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때 왕봉규의 사신이었던 임언은 같은 해(927) 이번에는 고려의 태조의 견당사로 파견되고 있어서⁶³⁾ 왕봉규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귀환하는 도중에 태조에 의해 사로잡혔거나 이 해에 강주지역에 진출한 고려군의 의해 강주의 일부 지역이 예속되는 가운데 그 또한 투항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태조의 사신으로 다시 후당에 파견된 임언은 왕봉규와 연결되었던 후당의 관심을 고려로 돌려놓는데 성공하였다. 다음 해인 928년을 기점으로 후당이 고려 사신에 대해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등 고려를 중시하게 되었던 것은 그 결과였다.⁶⁴⁾ 신라의 6두품 출신으로 생각되는 임언은 태조의

60) 지주제군사와 나말의 지방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전기웅, 『나말여초의 지방사회와 지주제군사』, 『경남사학』 4집, 1987 참조.

61) 『고려사』 권1, 태조 10년 4월조.

62) 『고려사』 권1, 태조 10년 8월조.

63) 『고려사』 권1, 태조 10년 조.

64) 박승범, 앞의 논문, 2004, 132쪽.

11비인 천안부원부인 임씨를 납치하여 태조의 妃父가 되었는데 이때 그는 경주인 太守로 나타나고 있다.⁶⁵⁾ 임언이 태조와 통혼하기에 이른 것은 고려와 후당과의 외교에서 그가 거둔 성과와 공헌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다.

강주와 왕봉규의 몰락으로 경명왕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신라의 대당외교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뒤이어 경애왕마저 견훤에게 살해됨으로서 완전히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신라는 다시 희생할 수 있는 기대감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고려의 진출에 자극을 받은 견훤은 927년 11월에 신라 왕경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살해하고 돌아갔다. 이는 오히려 후백제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강주 또한 이무렵 저항을 멈추고 고려에 귀부하였다. 태조는 견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강주는 남쪽으로부터 스스로 귀래하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⁶⁶⁾ 강주가 고려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자 견훤은 태조 11년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강주의 공격에 나섰다. 정월에는 강주를 구원하려던 고려의 元尹 金相과 正朝 直良이 초팔성 성주 興宗에게 패하여 김상은 전사하였으며,⁶⁷⁾ 5월에는 견훤의 습격을 받아 康州元甫 珍景이 싸웠으나 또한 패배하고 강주장군 有文은 견훤에게 항복하였다.⁶⁸⁾ 이후 강주는 후백제의 세력 아래 들어갔는데 934년에는 견훤의 아들인 양검이 강주 도독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보아⁶⁹⁾ 태조의 통일까지 후백제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왕봉규는 927년 고려의 공격에 의하여 강주가 넘어가면서 그도 또한 몰락하였을 것이다. 이후 왕봉규에 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다. 왕봉규와 손잡았던 신라의 경애왕도 왕봉규가 몰락한 지 수개월 후에 죽임을 당하였다. 거타지 설화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지만, 거타지의 뒤를 이은 강주 왕봉규의 해상세력은 통일전의 격랑 속에서 작제건의 후손인 더 강력

65) 『고려사』 권88, 후비1, 천안부원부인 조.

66) 『고려사』 권1, 태조 11년 조.

67) 『고려사』 권1, 태조 11년 정월 을해조.

68) 『고려사』 권1, 태조 11년 5월 경신조.

69) 『삼국사기』 권50, 견훤전.

한 해상세력 송악의 왕건에 의해 마침내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4. 맺음말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편을 통해 설화로 이루어진 고대사의 역사체제를 갖추려고 하였다. 신라 하대 경문왕가기의 설화들은 각기 그 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역사상을 상징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다.

신라가 몰락의 시기로 넘어가는 진성여왕대의 설화는 ‘진성여대왕거타지’조에 수록된 왕거인 사건과 거타지 설화의 두 가지이다. 이 두 설화는 얼핏 별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는 왕경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으로 당시 지배층의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방에서 흥기하는 해상세력의 모험과 성공을 희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왕경과 지방이라는 양자의 대비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왕거인 사건은 6두품 지식인과 왕경의 중심계층인 국인들이 여왕과 왕실 측근의 세력집단에 대한 불만을 다라니의 은어를 통해 표출한 것이었다. 현강왕대의 풍요와 번영에 길들여져 있었던 왕경인들은 진성여왕 즉위 후 지방에서의 조세 거부와 도적들의 봉기로 수입이 막히게 되자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왕경 내부에서의 분열은 이미 신라가 몰락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왕거인 사건은 진성여왕대 왕경의 사회상과 암울한 분위기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거타지 설화는 강주의 거타지가 신라 사신을 수행하여 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용왕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보호를 얻어 무사히 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의 테마는 송악의 작제건 설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바다로 나가 모험을 겪고 보물을 얻어 귀환한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해상 상인들의 모험담이었다.

두 설화 속의 사건은 그 후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왕거인 사건 이후 왕경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두로 개혁과 정치적 변화를 시작하였다. 예겸과 효종, 효공왕 요와 신덕왕 경휘로 이어지는 신라말 정치

사의 전개는 왕거인 사건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거타지 설화와 작제건 설화는 그 후 강주의 왕봉규와 송악의 왕건이라는 강력한 해상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거타지의 활동을 이어간 왕봉규는 신라의 대당외교에 협조하며 활동하였으나, 신라를 벗어나 독립된 국가 조직을 갖춘 송악의 왕건에 의해 몰락하고 만다.

설화란 형식은 역사의 기술과는 달라서 상상과 해석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마치 문학에서 시가 그러하듯이 당시의 사회상을 상징과 은유로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설화를 역사로 해석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을 것이지만, 계속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권영오,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대구사학』 76, 대구사학회, 2004.
- 김수태, 「고려 본관제도의 성립」, 『진단학보』 52집, 진단학회, 1981.
- 김영태, 「신라불교에 있어서의 용신사상-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11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4.
- 김창겸, 「신라 경문왕대 수조역사의 정치사적 고찰」, 『민병하교수정년기념논총』, 계촌 민병하교수 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1988.
- _____,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박승범, 「9~10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신라말 고려초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9집, 중국사학회, 2004.
- 박한설, 「왕건세계의 무역활동에 대하여-그들의 출신구명을 중심으로-」, 『사충』 10,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5.
- _____, 「고려 왕실의 기원-고려의 고구려 계승이념과 관련하여-」, 『사충 · 강진철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21·22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7.
- 서영대 · 송화섭 엮음, 『용, 그 신화와 문화 한국편』, 민속원, 2002.
- 송봉호, 「전통신앙과 불교의 대립에 관한 연구-구룡관련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7집, 한국무속학회, 2003.
- 송은일, 「신라하대 헌강왕의 친정체제 구축과 위홍」, 『신라사학보』 5, 신라사학회, 2005.
- _____, 「진성여왕대 『삼대목』의 수찬」, 『역사학연구』 27집, 호남사학회, 2006.
- 신동익, 「거타지설화 소고-용구출담의 비교를 중심으로-」, 『육사논문집』 26집, 육군사관학교, 1984.
- 신영우, 「삼국유사 거타지 설화의 신화적 속성」, 『논문집』 48, 서울산업대학교, 1998.
- 이기백,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신라문화』 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 이배용, 『신라하대 왕위계승과 진성여왕』,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 이우성,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일분석』,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 전기웅, 『나말여초의 지방사회와 지주제군사』, 『경남사학』 4집, 경남사학회, 1987.
- _____, 『신라말기 정치사회의 동요와 6두품지식인』,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회, 신서원, 1994.
- _____, 『신라 하대의 화랑세력』, 『신라문화』 10·11합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4.
- _____, 『나말여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혜안, 1996.
- _____, 『나말여초의 대일관계사 연구』, 『한국민족문화연구』 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 _____, 『진성여왕대의 화랑 효종과 효녀지은 설화』, 『한국민족문화』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 _____, 『현강왕대의 정치사회와 ‘처용랑망해사’ 조 설화』,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 조범환, 『신라말 화랑세력과 왕위계승』, 『사학연구』 57집, 한국사학회, 1999.
- _____,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2000.

<Abstract>

A Study of the Tale of ‘Queen Jinseong and Geotaji’
in *Samgugyusa*(『三國遺事』)

Jeon, Ki-Woong

There are two tales, the event of ‘Wanggeoin’ and the tale of ‘Geotaji’ in “Queen Jinseong and Geotaji” of *Samgugyusa* in the reign of Queen Jinseong when Shilla had been falling. The former told dark conditions of the ruling class of those days through a political event that had happened in the capital of Shilla. The latter hopefully described an adventure and a success of maritime groups that had been rising in the provinces. Two tales reflected the society of those days by comparing the capital with the provinces.

The story of ‘Wanggeoin’ expressed the discontent of intellectuals from Yukdupum(六頭品) and Gugin(國人), a leading class of the capital, with the Queen and people close to the royal family by using a secret language of Dharani. The division of the capital was a sign of the fall of Shilla. The event distinctly showed a social atmosphere of the capital under the reign of Queen Jinseong. The tale of ‘Geotaji’ was a story that he completed his duty and returned safely after he helped to the Sea King when he accompanied the envoy of Shilla and went to Tang. The tale of ‘Jakjegeon of Songak’ has the same theme of the tale of ‘Geotaji’. The story of Seaborne trader's adventures that a merchant returned safely with treasures after he went to sea and had an adventure were widely known in those days.

The events in two tales have had a big effect on history of Shilla since then. After the event of ‘Wanggeoin’, a new political group was on the rise and initiated a political reform in the capital. This event was the starting point of a political history in the late period of Shilla that continued from Yegyeom, King Hyojong, and King Hyogong, to King Sindeok. Two tales led to the

emergence of powerful maritime groups such as Wangbonggyu of Gangju and Wanggeon of Songak respectively. Though Wangbonggyu who succeeded to Geotaji's achievement increased his range of activities, agreeing to Shilla's policy toward Tang, he was ruined due to Wanggeon's power who established a state organization being independent from Shilla.

* Key Words: *Samgugyusa*(『三國遺事』), The Chapter of 'Queen Jinseong and Geotaji'('眞聖女大王居陲知' 條), Wanggeoin(王居仁), Geotaji(居陲知), Wangbonggyu(王逢規)

·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5일 ·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일 · 게재결정일: 2010년 11월 22일
--

